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토론문

장 시 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발표자가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 정책은 핵심 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현장의 심층적인 실천적 논의가 부족한 채 여러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4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코시안 등 새로운 교육의 수요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책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실험적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발표자의 연구는 다문화 교육이 현실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학교교육체제 중심, 대상 중심의 현행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의 기본적 목적과 방향성, 장기적 정책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발표자는 교육부, 여가부 등에서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한계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체제 안에서만 논의되고 실천되었던 각종 정책들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다문화 교육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평생교육 정책과 기 구축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의 교육자원과 다문화 교육의 연계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력의 보완, 성인기초문자해득 교육 등에 있어 학위취득제도의 연계 및 통합, 세부프로그램의 연계 활용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시민참여 교육 및 글로벌 시민교육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과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는 '타문화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이며,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대상중심의 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과 선주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공간적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민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해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토론에서는 발표자의 연구 내용에 더하여 평생교육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교육 대상, 교육 과정, 교육 방법,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교육은 소외 계층 또는 특정 대상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다문화 교육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을 넘어서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습득함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문화적 전통이나 사

회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문화적 단일성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의 해소 및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상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내용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종차별 교육 프로그램, 타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적응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장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열린사회인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교육과 직업생활의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2012년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의 1/3은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2/3는 월급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거나 일자리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질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200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도 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취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협약에 따라 모든 아이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협약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규교육에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비정규 학교 또는 대안 학교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 학교는 단위 학교의 다문화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재량권을 확대하고, 비정규 학교와 각종 평생교육기관은 민간 및 종교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이 학교 체제 외 민간·종교 단체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 교육 과정에 단순히 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교육 과정 전체에 다문화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을 학교현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개별 및 집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지원하고, 문화적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ICT활용 교육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칸아카데미, OCW(Open Course Ware)와 같은 대규모 온라인 강좌나 온라인 교류프로그램을 다문화교육과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가정학생과 부모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정책의 영역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공교육이 제공되는 출발점 이전부터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된 이유는 어머니가 제대로 한국어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다문화 교육의 한계를 넘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단순한 국어교육 차원을 넘어 학습 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문활(literacy) 교육이 필요하다. 즉, 체험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창조적 교육 방법을 통해서 문화적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발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및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학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다문화 교육의 접근 방법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차원을 넘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움과 사회적 연대”라는 의식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교육 과정, 학습 방법과 내용, 교사 또는 멘토에 대한 교육,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은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미국에서도 초기 정책 입안 시, 지나치게 교육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반성하면서, 교육 과정, 교과-상담 프로그램, 학교 경영과 조직 풍토에 관한 영역과 실천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 체제와 평생교육기관과의 협조 체제가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제한된 인·물적 인프라로 효과적인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체제 및 그 외의 단체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교육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학령아 대상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생교육기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과 다양한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분담도 고려해볼만하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의 사회적응력이 자녀의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다문화 교육의 평생학습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 토론에서는 연구자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학교교육체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교육 대상, 교육 과정, 교육 방법, 접근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교육을 위한 진지한 이해와 천부적 인권으로서의 배움은 일부 계층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평생교육적 관점으로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다문화 교육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을 넘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이념과 연계되어야 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